

기후재난에 휘청이는 노동자 건강권

- 10월 31일 ‘기후재난, 노동자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가다

유경희 회원

폭염, 폭우, 폭설, 한파 상황 속에서 현장 노동자는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 ‘기후재난’에 노동자의 건강권이 휘청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재난 시기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노동자 증언을 듣는 자리였다.

폭염에 급식실 에어컨을 설치하던 한 청년이 쓰러졌다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한 8월, 학교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갔던 27세 청년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입사한 지 이틀째 된 날이었다. 에어컨 설치 현장인 학교 급식실에는 선풍기 두 대 뿐, 환기조차 되지 않아 더운 열기로 가득했다. 당일 오후 4시 40분경, 현장을 빠져나온 청년은 자리를 빙빙 돌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열사병 증세가 발현됐지만, 회사는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들은 청년 노동자가 의식을 잃은 채 햇볕에 내리쬐는 장소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지병이 있느냐’고 물었다. 토론회 당일 참석한 청년 노동자 어머니는 ‘이 사회에서 더는 아들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위험은 끊임없이 외주화되고, 여전히 사업장은 폭염·폭우·한파 등과 관련한 재해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지도, 이행하지도 않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숨 막히는 폭염 속에 노동자는 ‘쉬지 않고 계속 작업하여 정해진 마감 기한 내 완료할 것’을 요구받는다.

현장에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은 여전히 꿈같은 얘기다

건설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송영진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활동가는 “건

설노동자로 오래 일해도 여름 현장의 온도와 습도는 여전히 적응되지 않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어지럽고 땀이 주체 없이 흥건하게 흘렀다”라고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건설 현장에는 휴게공간이 부족해 노동자들은 그늘진 곳 아무 데서나 한뼉잠을 자며, 폭염 때문에 도저히 일할 수 없어 회사에 작업중지권을 요구해도 거부당했다. 더운 열기로 인하여 동료들이 실신하는 모습을 본 노동자도 매우 많았다고 증언했다.

한여름 조선소 현장은 대낮 직사광선으로 화상을 입을 만큼 뜨겁다. 조선소 하청 현장은 ‘그늘막이 생산성을 낮춘다.’라며 꺼린다. 최민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조선하청지회 활동가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호스를 몸에 넣기도 한다.”라며 역설적인 상황을 전했다. 조선소 현장의 불별더위 대책은 조기 출근이다. 하지만 당일 정해진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13~15시 칼날 같은 더위를 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이처럼, 폭염·한파로 노동자의 건강이 무너져도 생산량과 회사의 이윤이 우선이었다.

발일하던 이주노동자는 여름내 식중독으로 배를 앓았다

가치, 고추 수확 시기인 여름에는 발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많다. 하지만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발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잠깐 쉴 여유도 주어지지 않는다. 배한주 베트남 통역사는 “이주노동자들과 사업주 간 언어가 통하지 않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하지 못하고, 땀별에 방치된 도시락을 먹어 식중독과 배앓이로 고생한 이주노동자가 매우 많았다”라고 말했다.



▲ 지난 10월 3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후재난, 노동자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손상용 활동가.

밭도 건설 현장도 조선소도 이주노동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공간이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에게 냄새난다.’라며 자리를 피하거나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일터에서 이중 차별을 겪어야 했다. 배 통역사는 “아직도 현장에 남아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거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토론회를 통해 지역에서도 노동안전 관련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안전 조례 등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재난 시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 사업장,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각 주체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안전한 일터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알터**